

삼성초기업노조, 조합원 지속 이탈 재정 논란·사법 리스크 ‘칩칩산중’

최근 조합원 5만 3000명대 파악
사실상 DS부문 중심 재편 분석
내부감사 등 지도부 갈등 고조

삼성전자청사 첫 과반노조였던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지지부(초기업노조)가 과반 지위를 잃은 데 이어 각종 논란까지 겹치며 교섭력도 약화되고 있다. 최승호 위원장의 사법·재정 문제에 지도부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삼성전자 최대 노조로서의 입지도 흔들리는 모습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조합원은 최근 5만3000명대로, 4월 말 7만6000명대에서 2만명 이상 줄었다. 지난 3월 말 삼성전자 과반노조로 인정받았지만 조합원 이탈이 이어지면서 석 달 만인 6월 과반 지위를 잃었다.

조합원 이탈에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과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의 이해관계 차이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성과급 재원을 둘러싼 이견이 커지면서 DX부문 조합원 상당수가 초기업노조를 떠나 동행노조로 이동했다. 지난 4월 2000명 수준이던 동행노조 조합원은 최근 3만명 안팎까지 늘었다.

초기업노조도 사실상 DS부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현재 조합원의 99%가 DS부문 소속으로, 노조는 오는 10월 초 총회에서 가입 자격을 DS부문으로 한정하는 규약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DS와 DX의 인사·재무·회계 체계와 재원이 분리돼 있어 양측의 요구를 함께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최 위원장을 둘러싼 재정 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지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지난 5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협상 결렬에 따른 총파업 강행 입장을 밝힌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제도 불거졌다. 초기업노조가 참여한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3월부터 최 위원장의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집회용 조끼 등 약 3억7000만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해 가격과 품질, 납기 등을 검토하고 공동투쟁본부 집행부의 동의도 거쳤으며 특별히 의혹을 부인했다. 본인이나 가족이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다는 설명이지만, 전산노와 동행노조 측은 해당 업체와 최 위원장의 관계를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리조트 회원권 계약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조합원 복지를 위해 구매한 회원권의 계약금액과 회계장부에 기재된 자산 취득액이 다르다는 지적으로 최 위원장 측은 분할 납부 과정에서 생긴 차이라며 회계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달 상반기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했지만, 두 사안에 대

한 감사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위원장은 이 부위원장에게 “위원장 권한으로 근로 면제 빼드릴 테니 광주로 가서 대응하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시간 면제를 해제해 노조 전임에서 빠고 현업으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로, 내부 감사를 예고한 간부를 노조 활동에서 배제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 위원장은 이 부위원장에게 조합 속소와 차량 반납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를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근거는 없다.

초기업노조 규약상 내부감사는 부위원장의 임무인 반면, 임원인 부위원장을 해임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근로시간면제 역시 노동조합법과 노조 규약에 위원장이 단독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초기업노조는 오는 16일부터 감사를 예고한 이 부위원장과 이원일 광주지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표결할 예정이다.

사법 리스크도 남아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 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전후 삼성전자 임직원 약 10만명의 개인정보와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9일 노조 공지를 통해 “노조 간의 갈등이 계속 커져 힘든 점도 많은 게 사실”이라며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DS부문 노동조합으로 규약 변경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가스텍 2026에 참가한 HD현대의 부스 조감도.

/HD현대

K-조선, 3탱크 LNG선·FDC 모델 등 선풍

〈부유식 데이터센터〉

가스텍 2026

HD현대 기술 인증 등 30건 행사
한화오션 데이터센터 솔루션 제시

HD현대와 한화오션이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에너지 전시회 중 하나인 가스텍(Gas tech) 2026에 참가해 차세대 조선·해양 기술을 선보인다.

1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는 조선·에너지 계열사 5곳이 공동 참가해 차세대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과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제기화 설비(FSRU),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등을 선보인다. 전시 기간 글로벌 선급의 기술 인증과 주요 기업과의 업무협약(MOU) 등 총 30건의 공식 행사를 진행한다.

로이드선급(LR)으로부터 선수 거주 구·풍력보조추진장치를 적용한 미래형 LNG운반선의 설계 적합성을 인정받는다. CE타입 액화가스 저장탱크와 3만5000㎥급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18만5000

㎥급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시스템은 기본인증을 받으며, LNG운반선 기관 운항 최적화 인공지능(AI) 솔루션 인증과 암모니아 추진선 안전성 평가용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인증도 추진한다.

3탱크 LNG운반선 기술도 소개한다. HD현대는 GTT·DNV와 화물창을 기존 4개에서 3개로 줄인 BW LNG의 17만7000㎥급 LNG운반선을 건조 중이다.

한화오션은 자체 개발한 60MW급 부유식 데이터센터(FDC)실물 모델을 처음 공개한다. 모듈화 설계를 적용해 환경과 고객 요구에 따라 발전·전력 공급 방식과 서버 유형, 용량을 구성할 수 있다.

한화오션은 조선·해양 기술에 한화그룹의 데이터센터·에너지·운영유지보수(O&M)·보안 역량을 결합해 사업을 추진한다.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 부사장은 “조선·해양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한화그룹의 에너지·데이터 역량을 결합해 육상 데이터센터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한화에어로, ‘천무’ 유럽시장 첫 독자수출

크로아티아서 6400억 규모 계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연장로켓(MLRS) ‘천무’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K9 지주포 도입 이력이 없는 국가에 수출됐다. 그간 K9의 후속 패키지 품목 성격이 강했던 천무가 기존 고객망을 벗어나 독자수출 플랫폼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크로아티아는 지난 10일(현지시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4억1000만유로(약 6400억원) 규모의 천무 18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크로아티아는 폴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에 이어 유럽 네 번째 천무 도입국이다. 노르웨이는 지난 2017년 K9 52문과 K10 14대를 계약한 뒤 지난 2월 천무 16대 계약을 체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운용으로 쌓은 성능과 군수지원 신뢰가 천무 선정의 주요 참고자료가 됐다고 설명했다. 에스토니아 역시 2018년 K9 12문 계약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약 2억9000만유로 규모의 천무 6대 및 미사일 3종 도입 계약을 맺었으며, 지난 5월 3대를 추가 발주했다. 폴란드는 2014년 K9 차체 수출과 2022년 8월 K9 완성형 212문 계약에 이어 같은 해 10월 천무 288대 기본계약 체결했다. 다만 중동에서는 이미 K9 선행 도입 없이 천무가 수출된 바 있다.

독자 수출 확대 배경에는 유럽의 장기 정밀화력 수요 증가가 있다. NATO는 지난해 ‘역량목표’에서 장거리 무기 강화를 우선과제로 제시했고, 지난 7월 유럽 6개국은 ‘지상 기반 정밀타격 능력’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서방 방산업체의 생산능력 한계와 지난



천무 다연장로켓.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2년 이후 한국산 무기에 대한 국제 방산시장의 재평가도 천무의 존재감을 키운 배경이다. 크로아티아 국방부는 천무 선택 이유로 단·장거리 정밀타격 능력과 운용 유연성뿐 아니라 24·36개월 내 인도 가능한 납기, 가격 경쟁력과 가용성을 꼽았다.

유럽 각국의 운용환경에 맞춘 체계통합도 시장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크로아티아 사업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대와 로켓탄을, 폴란드 WB그룹은 지휘통제시스템 공급·통합을 맡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앞서 폴란드형 ‘호마르-K’에 WB그룹의 TOPAZ 지휘·사격통제체계를 통합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월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K9 미도입국도 천무의 잠재시장으로 보고 있다며 동유럽·북유럽·중동 등을 주요 예상 지역으로 제시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기존 유럽 방산국의 생산능력 한계로 대량 생산과 신속 공급이 가능한 한국 방산업체의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다”며 “천무는 성능과 가격, 공급능력을 인정받으며 K9에 기대지 않는 독자 수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LG전자, 美 에미상 ‘TV·가전 파트너’ 참여

LG 시그니처 인플루언서 라운지 마련
제품 체험·현장 콘텐츠 제작 등 활동

LG전자가 미국 방송계에서 최고 권위로 인정받는 에미상(The Emmy Award)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프리미엄 브랜드 알리기에 나선다.

LG전자는 오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파콧 시아터에서 열리는 제78회 에미상 시상식에 공식 TV·가전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LG전자는 미국 텔레비전예술과학아카데미와 이어온 협력을 바탕으로 기존 프리미엄 TV 중심의 파트너십을 생활가전까지 확대했다. 올레드 TV와 함께 프

리미엄 가전 브랜드 ‘LG 시그니처’를 선보일 계획이다.

에미상은 미국 TV·방송 업계의 우수 작품과 배우, 제작진 등을 선정하는 시상식으로 1949년 시작돼 올해 78회를 맞았다. LG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식 파트너로 참여해 제품 체험과 현장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시상식이 열리는 로스앤젤레스 파콧 시아터 인근에는 ‘LG 시그니처 인플루언서 라운지’를 마련한다. 이곳에는 ‘LG 올레드 에보 AI’를 비롯한 프리미엄 TV와 ‘LG 시그니처 에센스 화이트 냉장고’, ‘LG 시그니처 스타일러’ 등이 전시된다.

배우와 크리에이터 등 시상식 참석자

들의 모습도 제품과 함께 현장 콘텐츠로 제작할 예정이다. 에미상 시즌에 맞춘 콘텐츠 접근성도 강화한다. LG전자는 독자 스마트 TV 플랫폼 ‘webOS’와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LG채널’에 에미상 전용 배너를 마련한다.

LG전자 북미지역대표 박도영 부사장은 “78회를 맞은 이번 에미상 시즌에도 텔레비전예술과학아카데미와 파트너십을 이어가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독보적인 화질의 올레드 TV 기술과 프리미엄 가전 LG 시그니처를 통해 전 세계 고객들에게 일상 생활 속에서 품격 있는 공간경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LGD, 실무자 중심 AI 활용 체계 고도화

‘AX 스위트’ 누적과제 450건 달해

LG디스플레이가 현업 실무자 중심의 인공지능(AI) 활용 체계를 구축하며 전사 인공지능 전환(AX)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각 사업부 실무자가 직접 AI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개

발하는 전사 프로젝트 ‘AX스쿼드(SQUAD)’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X스쿼드는 실무자가 실제 업무 과정에서 겪는 문제나 반복 업무를 AI 과제로 구체화하고, AI 도구를 활용해 개선 방안을 직접 구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AX스쿼드에 참여하고 있으며 누적 과제는 450여 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제조 분야의 불량 분류 간편화 프로그램, 개발 분야의 광학 시뮬레이션 도구, 인사 분야의 구성원 설문 시스템 등 약 190건이 자동화됐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AX스쿼드는 단순한 AI 사용자 역할에 머물던 임직원들이 과제 수립부터 실행까지 직접 참여하는 전사적 AI 혁신 추진 체계”라며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업무 혁신과 AI 내재화를 통해 기술 중심 회사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